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Patchwork Shown in Modern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patchwork was expressed in fashion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on its brief history and expression styles and to show its possibility of creating ways for new expression in modern fashion.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definition, history and styles of patchwork and investigated mainly works, which had been presented in collections home and abroad since 2000, to analyze its expressive characteristics shown in modern fashion.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expression of patchwork, it used various painting techniques such as patterns, colors and surface effect. It included patchwork having patterns provoking elusion of fairy tails; containing painting expression of reproducing works of artists; using colors boldly and contrasting strong primary colors directly to establish purity of painting and to pursuit characteristic expression; and using expression techniques of pure art such as gradation and cutting. Second, it used a compromise expression in materials, methods and substances. Patchwork which had used cloth without a pattern or printed fabric, utilized various materials like vinyl, paper, leather, metal and plastic and had a figurative value showing a solid expression as an objet itself with new techniques and changes of connecting methods. Thirdly, it used tradition patchwork techniques. Pieced patchwork, crazy patchwork and images of traditional odd ends of cloth covering a meal were applied to a whole area or a part of cloth to avoid monotony of design and to use it as a decoration.

주제어(Key Words) : 패치워크(Patchwork), 회화성(Painting), 절충성(Eclecticism), 전통성(Traditionalism)

I. 서론

현대패션은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일반 조형예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법과 표현들로 독창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생산이 아닌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섬세하고 수공예적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에 대해 그 희소성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표현양식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패션은 회화, 조각, 콜라주 등의 순수조형 뿐만 아니라 자수, 비즈, 워빙, 퀼팅, 패치워크 등 수공예적 기법이 도입된 실용조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의 형태가 응용, 도입되어 미적기능을 살리고 창조의 자율성을 갖는 조형예술로써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패치워크기법은 인류가 직물을 이용하여 신체를 보온하고 의복을 장식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생겨난 자연발생적인 기법으로 여러 민족과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문화수준의 향상과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와 함께 실용성, 장식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수공예의 단계를 넘어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조형요소들로 구성된 문양의 형태로 3차원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기법의 하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치워크는 패션디자인의 장식적 요소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소재의 부분적인 변형 뿐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패치워크에 관한 선행연구(김미화, 1997; 김소현, 2002; 김윤희, 1991; 노의숙, 2002; 문신애, 2003; 유보리, 1992; 조은주, 간호섭, 2002; 황지연, 1992)는 단순히 의복에 나타난 외형적인 표현에만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패치워크를 섬유예술 기법의 하나로 간주하여 작품제작을 위한 바느질 방법 또는 수공예기법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단편적인 언급으로만 다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치워크의 변천과정과 표현양식을 근거로 현대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패치워크가 패션에 있어 어떠한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패션에 있어 보다 새로운 표현의 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패치워크의 정의와 변천과정 및 유형 등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Mode & Mode, Gap, Collections, Fashion News, L'Officiel, Vogue 등 국내의 패션잡지 및 컬렉션 지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치워크의 정의와 변천과정

패치워크는 패칭(patching)에서 시작된 용어로 피싱(piecing)이라고도 불리며,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등 여러 모양의 천 조각, 가죽, 다른 재질의 조그마한 조각들을 손이나 기계를 사용해 연결함으로써 큰 직물을 만드는 것으로(Fairchild Publications, 1985, p. 390), 가장자리를 이은 천 조각들의 모자이크이며 걸감과 속, 안감의 세부분을 함께 바느질로서 맞붙이는 퀼트의 한 유형으로 퀼트를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에 따라서 패치워크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이정수, 송명전, 2001).

퀼트는 쿠션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Culcita'로부터 어원이 유래한 것으로 솜을 넣어 패딩한 커버나 의복으로 정의한다. 퀼트는 보통 무지 퀼트, 조각 퀼트, 아플리케 퀼트로 나눌 수 있으며(유보리, 1992), 패치워크란 일정한 형태의 조각들을 이어 구성한 조각퀼트와 형질을 도안대로 오려 천위에 덧붙여 구성한 아플리케 퀼트를 공통적으로 부르는 말로서 좀 더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각퀼트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패치워크의 유형은 하나의 단위형태를 이용하여 크기와 방향 또는 간격의 변화에 의한 반복과 중복의 원리로 발생되는데 각 조각의 조립에 의한 블록들은 다양한 세팅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조각들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될 경우와 명암 차이를 가지면서 반복될 경우, 질감과 비례의 차이를 갖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문양은 조각이 단일 형태일 때 단순성을 지니는데 반해 특수한 시각적 효과와 함께 운동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조각의 조립으로써 부조적인 조형표현도 가능하며 이는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조각의 특징은 그 단일 형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독특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패치워크에 있어 정확한 연결, 옷감의 선택, 그리고 각 조각들이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요소가 무시될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모아놓은 혼합물에 불과하게 된다(문신애, 2003).

우리나라에서도 패치워크 기법으로 만들어진 복식과 조각이불과 조각보 등 생활용품을 볼 수 있는데 이 조각들을 칭하는 이름이 없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바느질법을 패치워크로 볼 수 있다. 패치워크 문양의 조형적 형태구성과 도안으로 그래픽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으며 전통 패치워크 문양에서는 복고적인 감성 재현도 할 수 있는 기법이며, 현대에 와서는 평면에서의 조각들의 연결보다는 솜이나 다른 천을 여러 겹 대어 부조적인 질감을 이루어내는 표현을 하여, 실

용적인 면 보다는 장식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패치워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BC 7세기경 불교가 발생하면서 승복에 패치워크가 출현하였는데, 현재 까지 남아 있는 최고의 패치워크는 인도의 천명의 부처들(The Thousand buddas)동굴에 걸려 있는 봉헌물이다(문신애, 2003). 이후 패치워크는 11~12세기경 원정 갔던 십자군에 의해 근기 등의 제작형태로 동방의 기법이 유럽에 전파되었고 유럽에 전해진 패치워크는 14세기 중에는 중요한 장식 예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이정수, 송명건, 2001). 15세기경 영국에서는 바탕에 놓인 수를 잘라내어 다른 바탕천에 아플리케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패치워크는 영국을 중심으로 실용성 보다는 장식성을 위해 사용하였다. 16세기가 되면서 영국은 인도로부터 대량의 면직물인 친츠(Chintz)를 수입하였는데 변하지 않는 색상과 광택이 뛰어나 수요가 늘어났으나 영국인 업자들의 반발로 1722년 면직물 수입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친츠는 커다란 희소가치를 갖게 되어 한 조각의 인도산 면직물이라도 최대한 이용하기를 원했으므로 친츠로 된 헌 옷 가운데 아름다운 색상이나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 모아두었다가 다시 이어 붙여 침대 덮개 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패치워크가 발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황지연, 1992).

또한 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개척민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척자들은 신대륙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떠나올 때 가지고 온 옷들과 물건들이 낡아 헤어져 부족하기 시작하자 이런 못쓰게 된 헌옷 조각 등으로 패치워크 퀼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값싼 직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패치워크는 미국에서 번창해 갔으며 좀 더 여유가 생긴 중산층들에 의해 여가생활로서 받아 들여졌고 이에 따라 장식적인 바느질 기술로 발전되어 갔으며, 1960년대의 여성운동으로 많은 여류예술가들이 퀼트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이때 부터 패치워크는 순수예술의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김미화, 1997). 특히 섬유조형예술은 3차원의 공감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여 소프트 스킵츄어(Soft Sculpture)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한 재료를 사용하여 3차원 입체물이나 부조로 표현되는 순수조형의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품이 처음 전시된 것은 1960년대 팝아트 미술가인 Claes Oldenburg에 의해서로 그는 일상적인 사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대생활의 필수품을 부드러운 오브제로 확대시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섬유예술가들과 조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에 의한 작품이 제작되었다(Morrison, 1977, p. 67). 또 1970년대에는 현대회화와의 공통점을 강조해 퀼트와 패치워크가 디자인된 하나의 오브제로서 전시된 'Abstract

design in American guilt' 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 아트에 도달하는 인상표현과 패치워크의 기하학적 모양의 유사성으로 미술애호가들에게 즉각적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주리, 2004). 이와 같이 패치워크의 영역은 단순히 실용품이나 장식용품 제작의 범위를 벗어나 3차원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섬유예술기법의 하나로까지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패치워크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20세기 추상주의와 기능주의의 환경 속에서 현대감각에 맞는 예술작품으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2. 패치워크의 유형

패치워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예술성을 가미한 형태로 변형되어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문양으로 발달해 오고 있다.

패치워크의 전통문양은 수백 가지를 넘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다양하지만, 패치워크 기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모자이크 패치워크와 아플리케 패치워크이다. 모자이크 패치워크는 주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맞붙여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데(김윤희, 1991) 모자이크 패치워크의 전통문양은 다양하며 형태에 따라서도 기하학적 문양과 자유로운 형태의 문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형질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낸 다음 다른 천위에 덧붙여 구성한 것으로 디자인에 따라 버튼 홀스티치나 러닝 스티치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천을 잘라내는 방법 또는 덧붙이는 방법, 소재의 쓰임이나 자수의 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패치워크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패치워크의 유형

유형	구성방법
피스드 패치워크 (Pieced Patchwork)	삼각, 사각, 육각, 팔각, 분할 원형 등 일정한 형태의 문양을 서로 규칙적으로 이어 전체 문양을 만드는 것이다.
모자이크 패치워크 (Applied Patchwork)	서로 다른 형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덧붙여 나가거나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법으로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양은 로고 캐빈, 바, 메이플라워, 크레이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크레이지 패치워크(Crazy Patchwork)는 불규칙한 형태 또는 다양한 색, 크기가 서로 다른 형질조각을 모아 만든 것으로 작품을 이용한 플라주라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실용적이기보다는 장식용으로 쓰여 가능한 한 환상적인 방법으로 배치하여 빈 공간에 수를 놓거나 솔기를 시침질하여 변화를 주었다.
세미놀 패치워크 (Seminole Patchwork)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라이프 형태의 연속무늬가 생기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패치워크의 가장 자리 장식을 위해 쓰이기도 하며 문양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표 1〉 패치워크의 유형

유형	구성방법
모자이크 패치워크 (Pleated Patchwork)	평면의 패치워크 위에 재질감을 더해 줄 수 있는 기법으로 플리즈와 턱 등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표현효과를 준 것이다.
몰라 패치워크 (Mola Patchwork)	중미 파나마 지역 원주민들이 하던 방법으로 아플리케방법을 거꾸로 하는 것으로 위에 보일 바탕이 되는 천에 모양을 나타낼 천을 아래에 깔고 위에 있는 천을 파내어 아래의 천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버스(Reverse) 아플리케 패치워크라 하며 세심하게 잘라내야 하며 가벼운 무명이나 펠트같이 울이 풀리지 않는 감이 적절하다.
리케 패치워크 (Insertion Patchwork)	바탕 천 사이에 다른 소재를 삽입한 것이다.
위크 패치워크 (Shadow Patchwork)	새도우 패치워크 (Shadow Patchwork) 유색의 모티브를 투명한 천 사이에 넣어 합치는 것이다.
체인지 패치워크 (Change Patchwork)	모티브가 바탕과 정확히 반대편이 되도록 다른 쪽의 모티브로 쓰고 다른 쪽의 바탕천은 이쪽의 모티브로 쓰는 것이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

문화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 또한 확장되어 현대패션의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현대패션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추상화, 비정형화, 형태가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 역시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추구하여 자유로운 창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대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조형의식과 다양한 표현상황 하에서 섬유예술은 그 표현양식이나 재료, 기법 등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들의 표현에 대한 실험정신과 한계성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예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패션 역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의 표현특성분석을 위한 작품의 선정은 사진자료상 뚜렷한 패치워크의 기법을 나타낸 총 285점의 작품을 1차로 선정하여 패치워크의 표현특성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회화적 표현, 전통패치워크의 활용, 소재와 기법의 절충적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23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1. 회화적 표현

오늘날 섬유조형예술은 화이버 아트(Fiber Art) 혹은 패브릭 아트(Fabric Art)로 불리고 있으며 평면적 형태에서부터 3차원적 요소까지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인간의 손에 의한 티치에서만 가능했던 기법이 현대에서는 기계 등의 수단에 의해 정확성과 추상적인 특질을 가지고 반복, 연속 등의 기하학적 형태들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하겠다(유보리, 1992). 섬유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패션에 응용되는 패치워크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미적가치를 지닌 예술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그 성격이 변하여 직물의 낭비를 막고 장식성을 높이기 위한 생각이나 다양한 색채를 조화시키는 것에서 이제는 직물의 평면성에서 오는 표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질감과 3차원적 공간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직물의 표현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으며 패치워크의 전통적이면서 다양하고 세밀한 정교함과 색감, 기하학적인 형태미,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기법으로써 새로운 창작디자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패치워크는 그 기하학적인 문양만으로도 장식적이며 미적 효과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패치워크나 퀼트에 있어 회화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형태, 색채, 표면 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목시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섬유 콜라주가 회화의 매체로 사용된 것으로 물감에 의한 표현방법보다 부조적이며 촉각적인 느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은 데님 소재 위에 자수 기법과 함께 동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듯 한 패치워크를 표현한 것이고, 〈그림 2〉 역시 원피스 전면에 걸쳐 나무모양의 아플리케 패치워크와 다양한 패턴의 조각들로 동화적 이미지 회화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3〉은 광택 소재 위에 문자와 다양한 형상의 도형, 머리를 땀은 어린아이의 모습 등 어린아이의 낙서와 같은 그라피티의 형식으로 패치워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동화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문양과 패치워크의 기법을 통한 회화적 표현은 이성적인 의식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고갈되고 메마른 정서에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적인 의미의 유머를 느끼게 한다.

또 회화의 순수성 확립과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고자 회화 자체의 자율성과 화면대상의 단순화를 대담한 색채의 원색사용과 강한 원색간의 대비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주리, 2004), 이를 위해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 가장 순수한 표현성과 조형성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색채의 배치와 구도의 안정에 대한 직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율적인 가치와 독자적인 질서를 감수성의 표현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라데이션 효과나 커팅 기법 등 재질적 변화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 Anna Sui, 2001F/W (Mode&Mode, N.316)



〈그림 2〉 Tsumori Chisato, 2005F/W (Vogue, 2005.5)



〈그림 3〉 Tsumori Chisato, 2006F/W (Gap, vol.70)



〈그림 4〉 설윤형, 2001F/W (Mode & Mode, N.316)



〈그림 5〉 Martin Margiela, 2007F/W (Mode&Mode, N.340)

〈그림 4〉는 그레데이션 효과로 나염한 실크소재를 이용한 패치워크 스커트로 추상적임과 동시에 수목화의 번지는 기법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는 가죽 소재의 조끼 위에 인물의 형상을 패치워크 한 것으로 팝아트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2002S/S에 Yves Saint Laurent은 그의 회고전을 통해 Mondrian, Picasso, Matisse, Andy Warhol 등 예술가들의 작품을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재현하기도 하였다(그림 6).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존 재료들에 대한 상식을 변화시켜 전통 패치워크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던 장식의 기본적 형태를 분명히 다른 정교함의 특징을 변화시켜 형식성에 대한 종래의 관점을 수정하게 하는 것으로 실용성, 장식성을 넘어 순수예술의 표현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절충적 표현

절충주의는 좁은 의미로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넓게는 상이한 견해, 이론, 사상 등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거나 이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영향의 모색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선영, 2006). 패션 뿐 아니라 여러 예술분야에서 반영되는 절충성은포스트모더니즘 예술표현기법의 하나로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며,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범주와 시대적 맥락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회와 문화, 시대적 스타일들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불확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임은혁, 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의 절충적 표현은 사용하는 소재의 다양화와 재질감의 강조, 기법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데 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인해 디자인 전체 분위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패치워크는 일반적으로 무지 혹은 프린트로 된 패브릭을 이어 구성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는데 비닐이나 종이, 가죽, 금속,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색상이나 연결방법에 변화를 주고 또한 이들 재료들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표면적 특성으로 조각들의 높낮이를 달리하는 부조적구성과 그 자체가 오브제로써 입체적 표현을 보여주는 조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떤 물체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어지며 이 재료들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표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질감이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패치워크는 그 구성방법에 있어 다른 기법보다 조형성을 지니는데 이는 평면에서는 기하학적 면구성에 따른 시각적 조형성을 나타내고, 다른 질감의 패브릭이나 자수를 사용함으로써 촉각적 조형성을, 그리고 그 외에도 이물질들을 부착하거나 구성할 때 발생하는 부조적 구성으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현대패치워크에 나타나는 콜라주기법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소재들을 조합시키고 이 결합에 조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직물 이외의 이질적인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여 의상에 덧붙여 장식하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 패치워크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7〉과 같이 투명비닐과 불투명비닐의 조합으로 그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변화를 주어 각각의 조



〈그림 6〉 Yves Saint Laurent, 2002S/S (L'Officiel, 2002.4)



〈그림 7〉 Paco Rabanne, 2002S/S (L'Officiel, 2001.12)



〈그림 8〉 Franck Sorbier, 2007S/S (Gap, vol.17)



〈그림 9〉 On Aura tout Vu, 2007S/S (Gap, vol.17)



〈그림 10〉 Christian Dior, 2007S/S (Mode&Mode, N.338)

각을 연결하거나, 〈그림 8〉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금속판 조각들을 반복과 중복의 원리로 연결하여 그 형태미를 이용한 것, 〈그림 9〉와 같이 입체적인 주머니 형태의 조각들을 연결시킨 것, 〈그림 10〉과 같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어 부조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등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감과 그에 따르는 가능성을 추구하며 재료의 한계가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다른 소재들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복합되어 의의성과 유희성을 표현하기도하고 무질서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다양한 소재의 절충적 표현으로 소재의 재질감을 살리는 패치워크가 눈에 띄는데 의상 전체의 독특한 재질감을 주기 위해 전체적으로 형태를 구성할 때 오리거나 잘라 붙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11〉은 가죽을 깎는 형태인 패치워크 기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거친 효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입체적으로 접어 붙여 부조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연결방법에 있어서도 〈그림 12〉와 같이 다양한 패턴의 소재들을 솔기를 걸고 드리내거나 시접처리를 하지 않고 이어 붙이거나 덧붙이고 겹으로 스티치하는 등 수공예적 느낌으로 색다른 재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13〉은 다양한 조직으로 짜인 니트 조각과 가죽, 퍼 소재들을 서로 패치워크하여 의상의 재질감을 살렸으며 각 소재가 갖는 고유한 특성의 절충적 효과로 인해 동일색상의 비슷한 톤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는 변화감을 나타냈으며, 〈그림 14〉는 금속사를 박아 만든 얇은 패딩을



〈그림 11〉 Russell Sage, 2003F/W (Vogue, 2003.5)



〈그림 12〉 Issey Miyake, 2002S/S (Vogue, 2001.12)



〈그림 13〉 Maurizio Galante, 2002F/W (Fashion news, vol.80)



〈그림 14〉 Balenciaga, 2002S/S (L'Officiel, 2001.12)



〈그림 15〉 Enju Hong, 2002S/S (L'Officiel, 2001.12)



〈그림 16〉 Ji Hays, 2002S/S (Fashion news, vol.76)



〈그림 17〉 Christian Lacroix, 2007S/S (Gap, vol.17)
 〈그림 18〉 Dominique Sirop, 2007S/S (Gap, vol.17)
 〈그림 19〉 Ji Haye, 2002S/S (Fashion news, vol.76)
 〈그림 20〉 Chloe, 2007S/S (Gap, vol.73)
 〈그림 21〉 Russell Sage, 2002S/S (Vogue, 2001.12)
 〈그림 22〉 Versace, 2002F/W (Fashion news, vol.80)
 〈그림 23〉 Balenciaga, 2002F/W (Vogue, 2002. 5)

패치워크한 것으로 볼륨감이 가미되어 구조적으로 보임과 동시에 자율적 배치에 따라 미래적이고 아방가르드 한 이미지로 확장되어 표현되었다.

현대예술에 있어 일상생활의 연관성 때문에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예술을 즐기며 오히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합된 체계들은 인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 James Stirling의 말과 같이(Bertens, 2000, p. 94) 현대문화와 예술분야에서 보이는 해체와 절충적인 현상과 같이 패치워크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재의 혼성적인 사용, 새롭고 실험적인 소재와 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과 현대 물질문명의 불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표현은 다양한 형태와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한 디자이너의 표현의도인 동시에 풍부한 창조성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3. 전통 패치워크의 활용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천해 온 패치워크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면서도 현대적인 조형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식기법이라 할 수 있다. 패치워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복합된 문양은 규칙적인 질서를 지니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패치워크의 문양으로는 장방형, 사선형, 육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장사방형, 조개껍질형, 수직형, 수평형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패치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면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 패브릭의 조합과 장식적 효과가 더해진 복합된 문양의 구성방법도 나타나고 있다(손영미, 서윤주, 2006).

〈그림 15〉는 직사각형 조각들을 반복과 전환을 통해 스커트 전면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고, 〈그림 16〉은 전통 조각보를 모티브로 디자인 발상하여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이미지와 함께 입체적인 조형성을 살린 것이다. 반면 오늘날 대두되는 동양풍의 패치워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동양적 요소 즉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관련성 없이 또는 많은 경우 아이러니하게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방법인 혼성모방의 형식을 취하면서 독특한 형태미를 보이기도 한다.

〈그림 17〉은 다양한 색상의 삼각형의 조각들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의 면을 이루면서 다시 반복적인 배열로 스커트 전면에 배치시킴으로서 규칙적이면서도 울동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8〉은 규칙적인 주름을 잡은 정사각형의 새틴 조각과 또 다른 소재의 조합으로 단순한 느낌 대신 변화성을 느끼게 하였고, 〈그림 19〉는 오각형의 조각들을 이용하여 마치 조각과 같은 추상적 양식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드레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이용한 피스드 패치워크의 기법을 이용하여 의복의 전면에 또는 한 부분에 적용하여 다양한 변화를 나타냈다.

또 〈그림 20〉과 같이 단순한 블라우스와 함께 연출된 스커트는 불규칙한 형태와 다양한 색, 크기가 서로 다른 조각 천으로 구성된 크레이지 패치워크를(Penny, 1984, p. 29) 이용하여 화려한 장식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21〉과 같이 통나무를 겹쳐 쌓아가는 건축양식 이미지에서 생겨난 로그 캐빈 문양을 이용하여 방향성과 사선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또 스트링 명암변화에 의해 구성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표현하여 자유로운 리듬감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패치워크의 구성은 자수에 의해 흥미로운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형태 안에 자수를 하거나 <그림 22>와 같이 형태의 주위에 스티치로 장식할 수 있으며, 피시 본 스티치나 헤링본스티치, 블랭킷스티치 등이 주로 사용되고 기계자수인 지그재그기법인 경우 기계적인 패치워크에 장식성을 더해주기도 한다(문신애, 2003).

일반적으로 패치워크는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의 조각들을 이은 구성방법이나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을 연상하게 되지만 현대 패치워크는 그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곡선 구성이나 현대적 구성의 조형성을 표현한다. 이에 따라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역시 <그림 23>과 같이 블록이나 세트의 반복에 의한 규칙적 구성이 아닌 우연성을 표현하는 추상적 형태와 색상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미적 관점에서 2차원의 세계를 표현한 추상적 패치워크는 내면세계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화면전체를 행위의 장으로 인식하며 동기유출의 무의식적인 긴장과 내적 존재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에서 응용되어 현대적인 조형성을 나타내는 기법은 구체화된 형상적 이미지보다는 단순하고 이상적 감상을 압축시킨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우연과 암시를 통한 변형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이며 보다 독창적인 패치워크의 표현이라 하겠다.

IV. 결 론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치워크는 오늘날 섬유조형예술의 변화와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미적욕구와 함께 실용성, 장식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창조의 자율성을 갖는 조형예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패치워크의 변천과정과 표현양식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현대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패치워크가 패션에 있어 어떠한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대패션에서 패치워크가 보다 새로운 표현의 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패치워크는 조그마한 천, 가죽, 다른 재질의 조각들을 바느질로 연결하는 것으로 서로 가장자리를 이은 천 조각들의 모자이크이며 걸감과 속, 안감의 세부부분을 함께 바느질로서 맞붙이는 퀼트의 한 유형으로 패치워크 기법은 크게 모자이크 패치워크와 애플리케 패치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모자이크 패치워크는 주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맞붙여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피스드 패치워크, 어플라이드 패치워크, 세미블 패치워크, 플리티드 패치워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 패치워크는 형질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낸 다음 다른 천위에 덧붙여 구성한 것으로 몰라 패치워크, 인서션 패치워크, 새도우 패치워크, 체인지 패치워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패치워크의 표현은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현대패션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추구하여 자유로운 창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치워크의 표현을 분석한 결과 회화적 표현, 전통패치워크 기법의 활용, 소재와 기법의 절충적 표현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패치워크의 회화적 표현이다. 전통적인 패치워크는 그 자체로도 장식적이며 미적 효과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지만 형태, 색채, 표면 효과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회화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동화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문양을 패치워크한 회화적 표현은 현대인들의 고갈되고 메마른 정서에 카타르시스적인 의미의 유머를 느끼게 하였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재현한 회화적 표현, 또 회화의 순수성 확립과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하고자 대담한 색채의 원색사용과 강한 원색간의 대비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그라데이션 효과나 커팅 기법 등으로 전통 패치워크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던 종래의 관점을 수정하여 순수 예술의 표현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재와 기법, 재질에 있어서의 절충적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무지 혹은 프린트로 된 패브릭을 이용하던 패치워크는 비닐이나 종이, 가죽,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새롭고 실험적인 소재와 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켰으며,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색상이나 연결방법에 변화를 주고 또한 이들 재료들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표면적 특성으로 조각들의 높낮이를 달리하는 부조적구성과 그 자체가 오브제로써 입체적 표현을 보여주는 조형적 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다양한 형태와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한 디자이너의 표현의도인 동시에 풍부한 창조성으로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셋째, 전통 패치워크기법의 활용이다. 패치워크의 일반적인 문양인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과 복합된 문양을 이용한 피스드 패치워크, 크레이지 패치워크 등을 의복의 전면에 또는 한 부분에 적용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장식적인 효과로 활용하였다. 또 전통조각보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이용하거나 그 기법을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방법인 혼성모방의 형식을 취하면서 독특한 형태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구체화된 형상적 이미지보다는 단순하고 이상적 감상을 압축시킨 형태인 현대 추상패치워크의 표현양식을 빌어 보다 독창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는 전통적이면서 다양하고 세밀한 정교함과 색감, 기하학적인 형태미,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기법으로써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이고 보다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있어 패치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수공예적 기법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표현의 예술성과 함께 더 큰 고부가가치를 갖는 작품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미화(1997). 패치워크기법의 작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영(2006).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4(4), 1-9.
- 김소현(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공예적 소재 표현기법 연구. **한국공예논총**, 5(2), 43-58.
- 김윤희(1991). 패치워크기법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의숙(2002). 패치워크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신애(2003).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표현된 패치워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영미, 서윤주(2006). 패치워크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문화연구**, 14(4), 670-683.
- 유보리(1992). 서양전통 패치워크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수, 송명견(2001).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 21, 4, 39-58.
- 임은혁(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2), 71-86.
- 조은주, 간호섭(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Handicraft style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 21, 5, 113-131.
- 주 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마스터피스 퀼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지연(1992). 패치워크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tens, H.(2000). **포스트모던 사상사**. 장성희, 조현순 (공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5년 원저발간)
- Fairchild Publications(1985).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Morrison, A.(1977). *Experimental Stitchery*. New Jersey: Prentice Hall.
- Penny, M.(1984). *Crazy Quilts*. New York: Dutton.

접 수 일 : 2008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29일